KT, 강백호 재활 프로그램 가동

실밥 푼 강백호, 복귀시계가 돈다

배트 쥐고 허공에 스윙하는 수준
이르면 16일 재활군 합류 가능성
후반기 시작 이후 2~3주내 컴백

KT 강백호

실밥을 풀었고 배트를 쥐었다. 아직 정확한 복귀 날짜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재활군 편성 자체가 반가운 소식이다. 강백호(20·KT 위즈)가 본격적인 재활 프로그램에 돌입한다.

강백호는 6월 25일 사직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수비 도중 오른 손바닥이 5cm가량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이튿날 서울로 이동해 전신마취를 한 채 수술대에 올랐다. KT는 복귀까지 6~8주까지 걸린다고 예상했다.

강백호는 부상 전까지 78경기에서 타율 0.339, 8홈런, 38타점, OPS(출루율+장타율) 0.908을 기록했다. 지난해 데뷔한 그는 각종 신인 홈런 기록을 갈아 치우며 압도적인 신인왕에 올랐다. 올해는 콘택트에 눈을 뜨며 타격 지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려둔 상황이었다. 보름 이상 1군 엔트리에서 빠져있지만 여전히 타율 2위, 최다안타 공동 10위를 유지하고 있을 만큼 압도적 페이스였다.

예기치 못한 부상에 발목을 잡혔지만 좌절하진 않았다. 강백호는 11일 실밥을 풀었고 곧 재활군 편성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14일 "강백호는 이번 주 수원에서 재활군에 편성될 것이다. 빠르면 16일 재활군 합류도 가능할 듯하다"며 "아직은 배트를 쥐고 허공에 스윙하는 단계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티배팅, 토스배팅 등으로 차츰 단계를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빠르면 후반기 시작 후 2~3주 뒤 복귀도 가능할 전망이다.

서두를 계획은 없다. KT 트레이닝파트 관계자는 "재부상이 없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무의미한 가정이지만 '재부상이 없다'는 보장이 있더라도, 노브(배트 끝 손잡이 부분)를 쥐고 타격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좋은 퍼포먼스를 장담할 수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KT는 전반기 막판 황재균(오른 중지 골절·회복까지 6주)에 박경수(허리 통증·후반기 개막에 복귀 예정)까지 이탈하며 전력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강백호의 복귀까지 서두르다 부상의 정도가 심해지면 더 큰 낭패다. 선수와 팀 모두를 위해 신중하겠다는 각오다.

창원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텍사스 추신수(왼쪽 두 번째)가 14일(한국시간) 글로브라이프파크에서 열린 휴스턴과의 홈경기에서 1회 선두타자 홈런을 터트린 뒤 윌리 칼훈(왼쪽 끝) 등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알링턴(미 텍사스주) | AP뉴시스

추신수, 2연속경기 리드오프 홈런

텍사스 추신수가 2연속경기 1회 리드오프 홈런을 터트리며 장타력을 뽐냈다. 14일(한국시간) 텍사스주 알링턴 글로브라이프파크에서 열린 휴스턴과의 홈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출장, 0-2로 끌려가던 1회 상대 선발투수 웨이드 마일리의 2구째 컷패스트볼을 공략해 좌측 담장을 넘기는 솔로홈런(15호)으로 연결했다. 전날(13일)에 이어 이틀 연속 1회 선두타자 홈런으로 짜릿한 손맛을 봤다. 3타수 1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한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94(38타점)를 유지했고, 텍사스는 6-7로 졌다.

강정호, 컵스전서 시즌 9호 홈런

피츠버그 강정호가 일리노이주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 원정경기에 7번타자 유격수로 선발출장해 시즌 9호 홈런을 터트렸다. 0-10으로 뒤진 5회 상대 선발투수 존 레스터의 체인지업을 받아쳐 솔로 홈런으로 연결했다. 7회 내야안타를 포함해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의 맹활약을 펼친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179(21타점)로 소폭 상승했고, 피츠버그는 4-10으로 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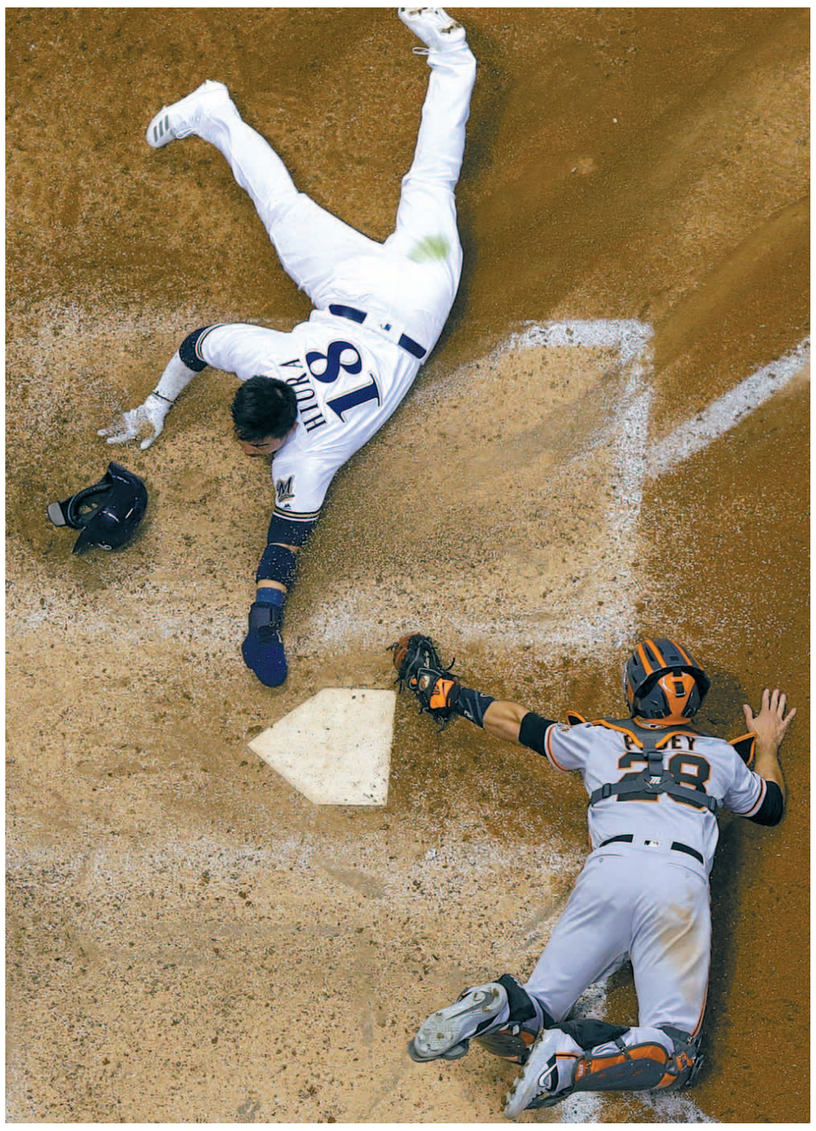
한동민·로하스·한승택 올스타 합류

KBO는 20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리는 '2019 신한은행 MYCAR KBO 올스타전' 드림올스타 외야수 부문 베스트12인 구자욱(삼성)과 강백호(KT), 나눔 올스타 포수 부문 베스트12인 양의지(NC)의 대체선수로 각각 한동민(SK)과 멜 로하스 주니어(KT), 한승택(KIA)를 선발했다. 부상으로 올스타전 출장이 불가한 구자욱과 강백호, 양의지는 그러나 올스타전 당일 팬사인회 등 식전행사에는 참석할 예정이다.

KBO "올스타전 MVP, K7 받는다"

KBO는 올스타전 시상 계획을 발표했다. 최우수선수(MVP)에게는 기아자동차 'K7 프리미어' 차량, 승리 팀에게는 3000만 원, 승리팀 감독과 우수투수, 우수타자상 수상자에게는 각 3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경기 중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베스트 퍼포먼스상' 수상자도 상금 300만 원을 받는다. '인터파크 홈런레이스' 우승자는 500만 원과 LG 트롬스타일러, 준우승자는 100만 원, 최장 비거리를 기록한 선수는 LG 공기청정기를 받는다. '퍼펙트피처' 상금은 우승자 300만 원, 준우승자 1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신설된 '슈퍼레이스' 우승팀은 350만 원을 받는다. 19일 열리는 퓨처스 올스타전 승리팀은 500만 원, MVP는 상금 200만 원, 우수투수상과 타자, 감투상 수상자는 상금 100만 원을 받는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한 끗 차이 밀워키 케스턴 히우라(사진 위)가 14일(한국시간) 밀러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와의 홈경기에서 8회 3루에 머물다 올란도 아르시아의 중견수 뜬공 때 상대 포수 버스터 포지의 태그를 피해 홈으로 파고들고 있다. 결과는 세이프. 아르시아는 희생플라이로 1타점을 추가했다. 밀워키(미 위스콘신주) | AP뉴시스

재충전 류현진, 후반기 첫 경기 'WS 복수전'

〈월드시리즈〉

오늘 오전 8시8분 보스턴전 선발등판

류현진

류현진(32·LA 다저스)이 15일 오전 8시 8분(한국시간) 펜웨이파크에서 시작하는 보스턴 레드삭스와 원정경기에 선발등판한다. 영광스러운 올스타전 선발투수의 임무를 완수한 뒤 후반기 첫 등판이다. 상대 선발은 올 시즌 7승2패, 평균자책점(ERA) 3.24의 좌완 데이비드 프라이스다.

●Revenge(복수)

다저스와 보스턴은 지난해 월드시리즈에서 맞붙었다. 보스턴이 4승1패로 우승했다. 류현진도 10월 25일 원정 2차전 선발로 나섰다. 정규시즌과 포스트시즌을 통틀어 펜웨이파크 첫 등판. 결과는 아쉬웠다. 4.2이닝 6안타 1볼넷 4실점으로 패전을 안았다. 2-1로 앞선 5회말 2사 만루서 구원등판한 라이언 매드슨이 류현진의 책임주자 3명을 모두 홈으로 불러들였다. 다저스의 2-4 패배. 당시 보스턴 선발도 프라이스다. 6이닝 3안타 2실점으로 승리투수였다.

그로부터 263일만의 재회다. 류현진은 올 시즌 전반기에 이미 10승(2패)을 거뒀다. ERA는 1.73으로 독보적 1위다. 프라이스와 보스턴에 설욕할 충분한 힘을 갖췄다. 다저스도 3년 연속 내셔널리그 우승과 월드시리즈 진출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반면 보스턴은 14일까지 50승42패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3위에 머물고 있다.

●Restart(재출발)

눈부신 전반기는 잊고 후반기에 집중해야 한다. 2013년과 2014년 잇달아 자신이 거둔 시즌 14승을 넘어 2000년 다저스 소속의 선배 박찬호가 올린 18승(10패·ERA 3.27), 코리안 메이저리거의 시즌 최다승에 도전하려면 새 출발의 자세가 필요하다. 후반기 첫 등판인 보스턴전이 그 시작점이다.

●Refreshment(재충전)

전반기 마지막 등판이었던 5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을 거쳐 10일 올스타전에 선발등판했다. 정확히 5일씩의 간격이 유지됐다. 1이닝을 책임진 올스타전의 투구수 또한 12개에 불과했다. "재미있게 잘 던졌다"는 소감대로 후반기 첫 등판을 앞두고 심신에 걸쳐 재충전이 이뤄졌다. 정규시즌 첫 펜웨이파크 원정을 앞두고도 기대감이 감도는 이유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류현진(LA 다저스) **보스턴전 등판 결과**(한국시간)

날짜	구분	홈/원정	결과	이닝	안타	홈런	4사구	삼진	실점	자책점
2013.8.25	정규시즌	홈	패	5.0	5	1	1	7	4	4
2018.10.25	월드시리즈	원정	패	4.2	6	0	1	5	4	4

한화는 왜 정근우를 중견수로 계속 쓸까?

정재우의 오버타임

국가대표 2루수로 명성을 떨치던 정근우(37·한화 이글스)의 외야수 변신은 올 시즌 내내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스프링캠프 때부터 화제였다. 은퇴할 날이 머지않은 베테랑 내야수의 외야수 전환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았다.

시즌 일정의 반환점을 훌쩍 넘긴 지금, '중견수 정근우'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성급한 결론일 수 있지만, '실패한 카드'에 가깝다. 정근우로 인해 좌익수로 옮긴 이용규의 항명 사태까지 떠올리면 더더욱 씁쓸하다.

정근우와 이용규, 올 시즌 한화의 추락을 상징하는 이름들이 됐다. 한화의 부진한 성적과 맞물린 여러 이슈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더욱이 정근우의 외야수비는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한화 정근우

지금이라도 정근우를 익숙한 자리로 되돌리면 어떨까. 정근우 대신 올해 한화의 주전 2루수로 성장한 정은원도 때마침 무더위에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정근우를 백업 2루수로 활용하면 정은원과 공존은 힘든 것일까.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서 일부 누리꾼들의 '원색적인' 비난마저 사고 있는 한용덕 감독의 심중이 궁금하다. 한 감독 역시 정근우의 백업 내야수 기용을 "고민해본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다만 실행에 옮기진 않고 있다. 왜일까.

'선수층', 이른바 뎁스(depth)의 강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누구든(어느 감독이든) 성적이 우선이지 리빌딩이 우선은 아니다"라는 한 감독의 말에선 역설적으로 뎁스 강화를 향한 결연한 의지까지 읽힌다.

공개적인 트레이드 요청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규는 구단으로부터 '무기한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징계 해제 시점은 불투명하다. 정근우 역시 부담감 때문인지 2차례에 걸쳐 부상으로 63일간 1군을 비웠다.

이런 사정이 다른 젊은 외야수들에게는 기회가 됐다. 장진혁과 더불어 고졸 신인 유장혁이 좌익수 및 중견수로 출장 시간을 늘리고 있다. 물론 성장속도를 논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직은 예비전력에 불과하다.

내야 쪽도 마찬가지다. 개막전 유격수 하주석이 5경기 만에 왼쪽 무릎십자인대 파열로 전열을 이탈한 것은 분명 불행한 일이다. 다만 백업 내야수로 분류됐던 오선진, 강경학에게는 확실히 기회가 됐다. 특히 오선진은 벌써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경기에 출전하며 하주석의 공백을 잘 메우고 있다.

시즌 전 구상한 베스트 라인업이 사실상 해체됐지만, 이 때문에 "여러 선수들을 폭넓게 쓰게 됐다. 이 과정이 지나면 뎁스는 두꺼워질 것"이라고 한 감독은 말했다. 오선진에 대해선 "지난해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기회를 줘도 못 살렸는데, 올해는 (주전이라는 의식 덕분에) 안정감이 생겨서인지 잘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정근우를 백업 내야수로 돌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라인업이 너무 약해지기 때문"이라는 직접적 설명이 뒤따랐다. 비록 수비는 불안해도 타격을 비롯한 야구센스에서만큼은 정근우가 여전히 후배 외야수들을 압도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장진혁, 유장혁 등이 아직은 '뎁스 강화'라는 한 감독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한 감독은 "(실력 있는) 고참을 일부러 배제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성적을 등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중견수 정근우'가 후배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도우미가 돼주길 바라는 간절함이 묻어나는 발언이다.

jace@donga.com